

사회적 대화 위해 종교가 힘 합쳐야

조계종 화쟁위원회, '사회적 대화' 토론회

사회 갈등 요소를 어떻게 대화로 풀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사회문제의 불교적 해법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승권 전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화쟁 위원회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백 전 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가치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갈등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조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싸움을 말려야 할 정부가 가장 큰 싸움꾼이 된 시대에 누가 싸움을 말릴 수 있는가"에서 사회적 대화의 종교의 역할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백 전 국장은 중세 세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힘'을 가진 세력이 바로 '제도권 종교'라고 주장했다.

백 전 국장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고 난 다음 이를 현실로 만드는 문제도 제도권 종교의 몫"이라면서 "하지만 안타깝게 제도권 종교의 힘은 아직 갈등 문제를 완전히 풀어낼 만큼 모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국장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의 힘과 뜻이 모아져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화쟁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향후 제도권 종교가 사회적 대화를 가장 중심된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설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정부 및 외국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 사례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내놨으며, 정주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은 '사회적 대화에서의 종교계 역할'을 주제 발표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1월 27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마 할퀸 낙산사, 佛心으로 복원

2005년 4월, 화마로 인해 양양 낙산사는 폐허가 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8년 7개월에 걸친 긴 세월동안 회주 정념 스님과 주지 무문 스님 등이 주축이 돼 불사복원에 온 정성을 쏟았다.

대웅전인 원통보전은 웅장한 팔작지붕을 되찾았고, 뜨거운 화염에 녹아내린 보물 479호 동종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사찰 초입의 흥예문과 7층 사리탑이 새로 들어서는 등 3천일 동안 3차에 걸쳐 복원이 마무리 됐다. 이와 더불어 화재예방 시스템도 완벽히 갖춰졌다.

불이 날 경우에 대비해 소화설비 21대가 곳곳에 설치됐고 80여 대의 CCTV와 열 감지 카메라가 24시간 사찰을 지키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결으로 다시 돌아온 낙산사가 3천일 회향을 맞아 11월 24일 복원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타전에 관음보살상이 점안됐고, 사리탑도 공개됐다. 해수관음공중사리탑을 재현해 사리를 모신 것이 특징이다.

낙산사는 3천일 회향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아직도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의상기념관 옆에 모셔진 동해용왕 사적비의 좌대를 재현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낙성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 주지 무문 스님은 3천일 불사 경과도 전했다. 무문 스님은 "원통보전, 범종루, 흥예문, 연하당, 심경당, 선열당, 취숙헌, 해우소 3동, 해수관음상 주변 108법륜석, 빈일루, 응향각, 정취전, 설선당, 고향당, 근행당, 의상대, 지장전, 지장



11월 24일 열린 낙산사 복원불사 회향 법회에서 회주 정념 스님이 신도대중들의 환호에 응답하고 있다.

11월 24일 낙산사 3천일 복원불사 회향 법회 원통보전, 동종 등 20여개 전각 원래 모습으로 10년간 복원과정 책으로 묶어 3만권 법보시

보살상, 도명존자상, 무득귀왕상, 무료국수공양, 380톤 소방탱크 2동, 관세음보살상 개금, 흥련암 법당 종분사, 의상조사 진영, 1,500 관세음보살상과 32응신상 개금 불사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낙산사 복원은 외부 불사 복원외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내형 복원에도 진력했다. 포교당 무산사 신축,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무산지역아동센터, 의상어린이도서관,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양양군민들이 낙산사의 후원으로 함께 일할 도모하고자 했다.

회주 정념 스님도 "사적비 작성, 사리탑

의 준공, 견찰관세음보살 개금, 보타전 1500 관음 개금, 지장전 명부시왕 점안, 흥련암 종분사를 끝으로 낙산사와 흥련암 3천일 복원 불사의 대단원을 마친다"며 "10년 복원불사를 회향하고 영욕의 시간을 뒤로하고 낙산사를 떠난다"고 그간의 소회와 고별사를 함께 했다. 한편 정념 스님은 지난 10년간의 낙산사 복원과정을 정리해 책 한 권으로 묶었다. 제목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이다. 정념 스님은 3만 권을 제작해 복원불사에 도움을 준 전국의 불자와 국민들에게 법보시 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꿈이 시작되는 휴식문화공간으로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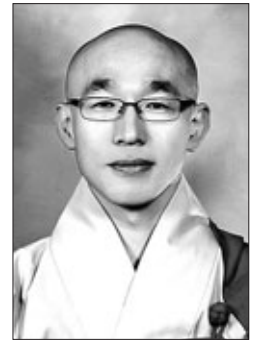
복원불사 3천일 회향한 주지 무문 스님

방재 시스템 대폭 강화 지역민 위한 사업도 진력

"시원하기 보다는 아쉬움이 더 큼니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3천일 동안 이어진 낙산사 복원을 마무리한 주지 무문 스님에게 소회를 묻자 이 같은 답이 돌아왔다.

"어떤 점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뭐든지 지나고 나면 심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복원 불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해주 고픈 부모의 심정처럼 무엇을 해도 모자란 느낌이었다.

불사 재료, 방범, 과정에 정성을 다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아있는 돌과 주변 나무를 허투루 보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다. 원통보전의 축대가 그렇고 빈일루도 마찬가지다. 낙산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고증자료를 참고해 흥련암 가는 길을 새로 조성했고 도랑에 아이기기를 부여해 '꿈이 시작되는 길, 꿈이 이뤄지는 길, 설레임의 길' 등을 마련해 복합 휴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또한 100년이 지나도 전통과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해서 석축 하나를 다룰 때도 정과 망치를 이용하는 등 일일이 수작업을 고집했다. 그때마다 인부들은 곤혹스러워했고 시간도 세 배 이상 걸렸다 하지만 복원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낙산사의 원만 복원을 바라며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준



이 없었다.

"회주 정념 스님은 이를 계기로 낙산사가 지역사회를 보듬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지관 설립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말 많은 지역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무료로 국수공양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기본 정서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길위에서 마주치는 이들이 신도 말고 없었지만, 이제는 부쩍 모르는 사람도 다가와 스님에게 인사한다. 대개 지난 번 경로잔치가 즐거웠다면 가 하는 등의 진심어린 고마움이 담긴 인사다.

"새로운 전법도량으로 태어난 낙산사는 지난해 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설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통보전 축, 후면에는 9미터 50센티 길이의 수막설비를 설치함은 물론 방수층 25개, 380톤급의 물탱크도 두 개나 갖춰 웬만한 화재에도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배현진 기자

"대화·교류로 상생 터전 만들자"

제16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중 하이난서 개최

한·중·일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종교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전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 일본 불교계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1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했다.

3개국 불교지도자 300명이 참석한 이번 교류대회에서는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주제로 열렸다. 첫 교류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지만 '응용불교'를 통해 사회문제를 치유하려는 시도는 이례적이었던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장 서광 스님은 "자연재해로 인해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희생자에 대한 종교적 위로를 통해 유족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명상을 연계한 심리치료를 통

해 스트레스 장애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자연재해 생존자들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들어 서구사회에서 불교의 마음챙김과 고성제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의 생활전통과 생사관, 자리아타관의 회복은 자연재해 생존자들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세계평화기원문을 발표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의 원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실천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야할 길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에 참석한 불교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인류는,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를 중단하고, 모든 종교는 대화와 교류로 서로를 인정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대표단은 11월 24일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의 유해가 묻힌 천인갱을 방문해 고인들을 위로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표 스님

들은 하이난성 산야시 조선현(현 난딩촌, 南丁村)에 세워져 있는 추모비 앞에서 위령재를 봉행했다.

위령재에서는 '조선보국대'라는 명분으로 해남도에 끌려와 사망한 한기석 씨의 유가족인 부인 이강희(93), 아들 한광수(73) 옴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한편, 3국 불교대표단은 108m 높이의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참배하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종일 기자

"총무원장, 조계사 주지 겸직은 중헌 위배"

도정스님 법규위에 심판청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정 스님이 11월 25일 조계종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이 중헌 위배라는 심판청구를 법규위원회에 청구했다.

도정 스님은 조계종법규위원회에 보낸 심판청구서를 통해 "중헌 제52조 4항에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중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원장이 조계사 주지를 겸직하는 것은 엄연한 중헌·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현명한 판결로 중헌·종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중도들의 혼란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봉 제2대 총무원장 원경당 삼주스님 취임 및 초대 총무원장 호월당 화엄스님 이임식 행

귀의삼보하옵고,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통일부장관 초청 [2013년 제1회 전국호국불교통일기원대법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제2대 총무원장 원경당 삼주스님의 취임식과 초대 총무원장 호월당 화엄스님의 이임식을 강호의 제방 원로, 대덕 큰스님과 지역기관장,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이취임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수희 동참하시어 법석을 더욱 빛내 주시길 청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7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산 중구 영주동 743-80 코모도호텔 1층 대연회장 그랜드볼룸 (051-466-9101)
- 문 의 : 총무원 041)566-2277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